



정교회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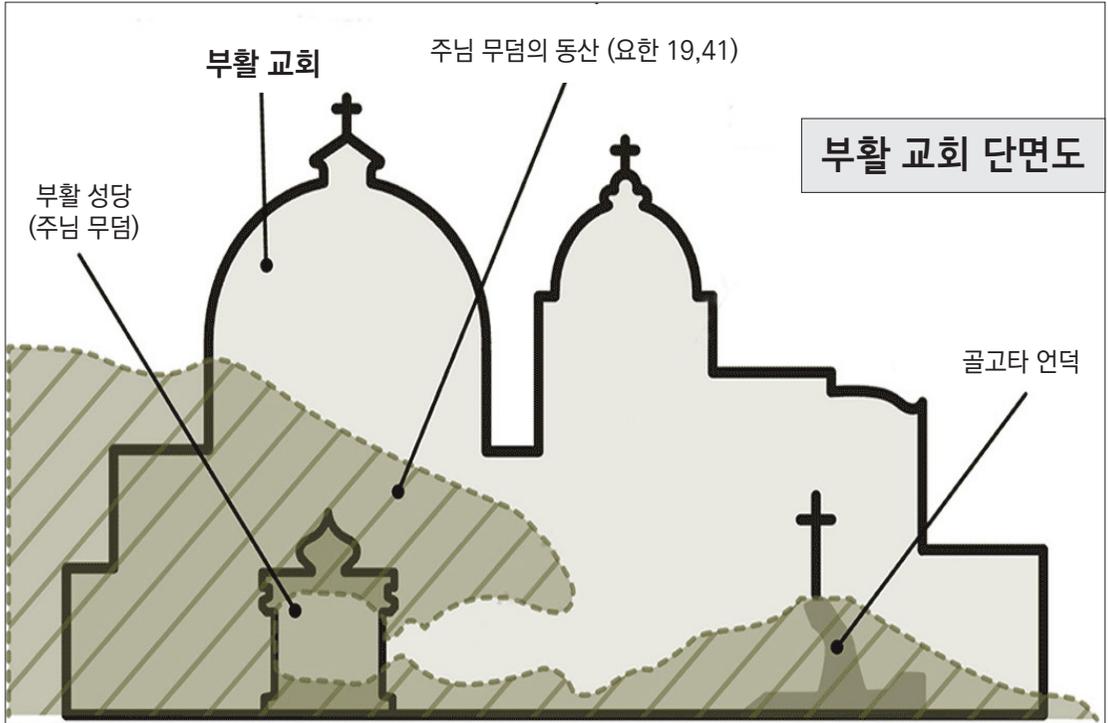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루가 제 1 주일

성 세르게이 라돈네즈의 수사

성 에프로시니 수녀

(제6조 • 조과 부활 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6조 부활 찬양송 82

수도자 찬양송 85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85

사도경 : 2고린토 4,6~15 - 봉독서248

복음경 : 루가 5,1~11 12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겸손을 다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억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찬란하게 빛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을 걸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그 불러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에페소 4,1)라고 신자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이 겉으로만 보이는 형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겸손을 강조하였고 교인들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면에서 행해야 할 미덕임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겸손을 다하여”(에페소 4,2 참조)라고 서신에 적은 것입니다.

-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

용서는 빛나는 장점이지, 나약함이 아닙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럼 과연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나요? 베드로의 이와 같은 질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여라.”(마태오 18,22)라고 하셨습니다. 즉, 셀 수 없이 많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진심으로”(마태오 18,35),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쓰라리고 불편한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란을 일으키는 독초”(히브리 12,15 참조)를 모두 뽑아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가 낳는 힘과 긍정적인 효과들 없이는 어떤 인간관계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도, 가정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친구들과의 우정도 제대로 지탱될 수 없고, 우리 사회도 건강하게 구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넓은 아량과 굳은 의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향해 베푸신 하느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준다면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는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나약하고 하느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되려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강인하고 튼튼한 자는 용서를 베풀 줄 압니다. 복수의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섭섭하게 하거나 상처 주었던 일들을 용서하고 털어 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이 전하는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잘못과 죄가 있지만, 죄가 없으신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니 당신도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비를 베풀' 때에만, 즉 남들에게 용서를 베풀 때에만, “무자비한 심판”(야고보 2,13)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느님을 알게 된 사람



누군가 영적인 삶을 사는 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 속에서 하느님을, 그리고 모든 현상과 징후들 안에서 하느님의 힘과 능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는 자신이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과 모든 것에서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육신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은 그저 육신과 관련된 것만 할 뿐입니다. 그는 어떤 것에서도 하느님을 보지 못하며, 심지어 하느님의 신성한 능력이 가장 놀랍게 드러나는 사건들 속에서조차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모든 것 속에서 그리고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육신과 물질만을 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저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시편 36,2)

- 성 요한 크론스타트

모든 것을 하나 불 속에 던지면 그것은 뜨겁게 달궈진다. 마치 불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 성 시메온 신학자

영혼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곧 우리와 가장 가깝고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영혼 안에 있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영혼에 기쁨을 가져옵니다.

하느님을 완전히 알게 된 영혼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 앞에 한 나라를 가져다 놓더라도 그는 그 나라를 가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도 큰 감미로움과 기쁨을 그에게 주기에, 그는 왕실의 삶에서조차도 어떤 달콤한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 아토스 성산의 성 실루아노스 수도자



주간 예배 안내

* 9월 26일(월)

성 요한 복음사도 신학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안내

10월 3일(월), 24인 수호 성인 축일을 맞아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조과는 8시 30분에, 성찬예배는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소속 성당을 통해 미리 알려 주시면 식사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절 버스는 따로 없으니 개별적으로 오시면 됩니다.

소식

■ 양구 성당 새 진입로 공사 완료

양구 성 안드레아 성당의 새 진입로 공사가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진입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쇄하였습니다.

공사 감독으로 수고하신 미하일 박인현 교우에게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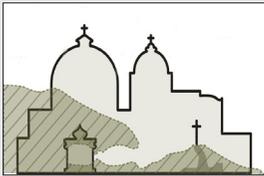
■ 서울 성당의 수도원 봉사 활동

지난 17일(토), 15명의 장년회와 청년회 회원들이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름 내내 자랐던 잡초 제거와 밭을 정리하였고, 건물 내 노후한 곳을 수리하고,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묘소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또한 대주교님 묘소 앞에서 추도식을 드렸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10월 16일(일), 성찬예배 후 성당 마당에서 음식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신자 여러분의 많은 준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정교회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표지 사진 설명



부활 교회 (3)

부활 교회(사진) 내부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맞이한 골고타 언덕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무덤 위에 세워진 부활 성당 외에도 중요한 장소가 여러 곳이 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겹옷을 나누어 가진 곳(마르코 15,24),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베로 감은 곳(요한 19,4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이 서 있던 곳(마태오 27,55)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부활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콥트 정교회, 가톨릭교회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리스 정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여섯 교회는 1852년에 체결된 '현상 유지법'에 의해 교회 안에서의 소유권과 전례, 전통들을 인정받는다. 한편 13세기 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다시 침범했고, 이때 부활 교회는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이슬람이 교회를 장악했다는 표시로 교회의 출입문 두 개 중에 하나를 돌로 완전히 막아버렸으며(주보 37호 1면 사진 참조), 나머지 하나의 출입문 열쇠는 이슬람 측이 소유하였다.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부활 교회는 한 개의 문만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 출입문은 안쪽 문과 바깥문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안쪽의 열쇠는 그리스 정교회가, 바깥쪽의 열쇠는 이슬람 측에서 소유하고 있다.

2011년 1월 16일, 부활 성당에서 자정에 거행된 성찬예배에는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성지순례단이 참례하였고, 공동 집전한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가 성찬예배에서 처음으로 우리말 복음을 선포하였다.